스승의날 한국교총 설문서 19.7%2016년엔 ‘다시 교직 택한다’ 52.6%  
  
  
  
  
  
  
  
클립아트코리아‘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현직교사는 10명 가운데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인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5월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19.7%였다. 교총이 2012년부터 진행한 9번의 설문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자, 첫 10%대 기록이다. ‘다시 교직을 택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016년 52.6%까지 올랐지만, 2019년 이후 조사에선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교직 생활에 현재 만족하는지에는 21.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문제행동·부적응학생 등 생활지도(31.7%),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 등을 많이 꼽았다.‘교권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시행 뒤 변화에 대해선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26.6%만이 ‘이전보다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감소했다는 교원은 32.9%였다.한편,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 교사 9361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에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초등교사는 22.3%였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도 63.9%나 됐다.